

보도자료

2013. 8. 12.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공보관실

담당자

홍보심의관 이현복
(☎ 3480-1453)

공보관실 ☎ 3480-1451

대법원, 공식 유튜브(youtube) 계정 운영 개시

-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대법원은 법원과 재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2. 8. 7. 페이스북 계정 [<http://www.facebook.com/scourt Korea>]을, 2012. 11. 27. 트위터 계정 [<http://twtkr.com/scourt Korea>]을 개설한 후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음
- 대법원이 이에 더하여 최근 새로운 온라인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활용을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로 함
-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법원 및 각급 법원 소식,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동영상, 대법원 사법정책 홍보동영상, 대법원장 동정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임
- 대법원은 2013. 8. 8. 대법원 공식 유튜브 브랜드채널 계정 [<http://www.youtube.com/user/scourt Korea>]¹⁾을 개설하고, 첫 번째 게시물로 대한민국의 근대사법 100년사를 조망할 수 있는 홍보동영상[법원사 100년의 발자취]을 게시하였고, 2013. 8. 12. 대법원 16층 1601호 회의실

에서 구글코리아와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대법원에서는 윤성식 공보관, 구글코리아에서는 정재훈 선임정책자문 변호사가 참석하였고,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사법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음
- 대법원은 유튜브 계정 운영이 법원과 재판을 보다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사법부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대법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유용한 수단의 활용에 노력하는 한편, 온라인 환경에 친숙하지 않은 세대나 계층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계획임

1) 아직 시행초기인 단계라 유튜브 사이트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으로 검색해야 대법원 브랜드 채널을 볼 수 있음